담배연기 없는 '청정 해남' 만든다

해남군, 금연구역 531곳 지정 … 금연클리닉도 운영

대도시만이 아니라 전남지역 각 시군에서도 금연조례를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 해남군이 다음달 1일부터 관내 버스승강장 등 무려 531곳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해남군 보건소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학교 절대정화구역 및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석유 판매업소,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는 기존 '국민 건강 증진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정한 150㎡ 이상의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PC방, 학교,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군 보건소는 지난달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관내 학교절대정화구역 43곳을 비롯해 버스승강장 427곳 등 모두 53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위반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군 보건소는 다른 시군이 공원과 가스충전소 등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관례를 깨고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를 포함시켰다.

다만 연말까지 관내 PC방에 한해서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내 위주의 계도 기간을 거치도록 했으며, 계도 시에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관련 법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해남군은 금연 클리닉 운영, 담배 없는 시범마을 조성, 청소년 금연교실, 직장인 대상 이동 금연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해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완도 15개 마을 297어가 수산직불제 시범 시행

완도군이 수산업 경영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수산직불제를 시범 시행한다. '조건 불리 지역 수산직불제'란 어업 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에만 적용, 완도는 대상지역이 없었으나 올해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완도지역 3개 읍·면 15개 마을 297어가가 가구당 49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직불금 지원금 가운데 70%인 34만3000원은 어가에 직접 지원한다. 30%는 바닷가 청소 등 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공동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수산직불제 사업 확대로 낙후된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완도 바다서 채취한 명품 다시마 17일 오후 완도군 신지면 임촌리에 사는 한 어민이 갓 채취한 다시마를 말리고 있다. 완도는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5만8000t이 수확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도군 제공〉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42년만에 '신안군청시대' 열어

신안군

목포서 압해도로 청사 이전

관광객 급증 삶의 질 높아져

민선 5기 들어 신안군은 42년 만에 군청사를 목포시에서 신안군 압해읍으로 이전했다. 명실상부한 '신안군청시대'를 연 셈이다. 그리고 1004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의 특징을 '천사섬'으로 상징화해 이를 국내·외에 각인시킨 것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박우량(58·사진) 신안군수는 17일 "모든 것이 불편하고 낙후돼 있다고만 여겨졌던 섬을 관광자원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주민 삶의 질 역시 크게 높아졌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증도, 천일염 등이 대표 명품으로 자리잡으면서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100선 중 1위와 2위에 각각 홍도와 증도가 선정되는 등 유명세를 타면서 홍도에는 연간 30만명, 증도에는 100만명의 관광객이 몰렸다. 신안 천일염 역시 지난해 하반기 소금산업진흥법 시행과 함께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되면서 천일염생산 기반을 구축, 프랑스 이탈리아와 세계 3대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주민들을 위해선 380여개에 이르는 경로당을 신축되거나 개축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목욕탕을 곳곳에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14개 읍면 전 구간을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연간 10만명이 이용하는 천사섬 분재공원 조성, 전국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4년 연속 수상, 천사섬 갯벌 모실길(1004km) 조성, 폐비닐 및 농약병 8150t 수거, 국내 최초 친환경 세재 보급, 사계절 꽃 피는 섬 조성 등의 사업을 완료했다.

박 군수는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2013년 예산편성 결과 통합재정지수에서 전국 84개 군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며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통해 안전행정부 건전자치단체 기준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군 재정이 열악한 시점에서 김환기 미술관 건립, 흑산도 소형공항 조성, 신장~복룡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 임자~지도 간 연륙교 사업, 압해~운남 간 연륙교 사업, 압해~암태간 새천년대교 사업, 도초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 등 예정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또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갯벌이나 양식장이 잠식될 가능성도 있어 반발하는 어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과제가 되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목포문학관 프로그램 운영 다채

목포 출신 작가 4인의 작품세계를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목포문학관이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문학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포시는 17일 "목포문학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문학관 문학작가 파견사업'에 4년째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학작가 파견사업은 전국 문학관협회 소속 문학관 61개소 중 7개소가 선정됐다. 목포문학관은 4년 연속 선정돼 국비 820만원을 지원받아 목포시노인복지관과 이랜드노인복지관 등을 작가가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은빛 문학교실' 등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북

순창에 가면 힐링이 된다

건강장수연구소 일원 치유의 숲 조성 … 노후설계교육생·등산객 등에 큰 인기

순창군이 최근 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이 노후설계교육생은 물론 등산이나 가족 단위 산책 공간을 원하는 군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노인복지와 장수정책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순창군은 치유의 숲 주변에 구절초 등 야생화 3만여 그루를 심어 소나무와 야생화가 어우러진 개성만점의 숲 경관을 조성한 바 있다.

또 숙박동 광장 앞에 운동기구 설치와 조경 공사를 통해 건강장수연구소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친화형 힐링공원 개념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건강장수연구소를 찾은 코레일 관광객 김모(57)씨는 "순창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며 "노후설계교육 시 이곳에서 명상 등이 이뤄진다니 꼭 한 번 참여해 보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처럼 건강장수 연구소 주변경관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최근에 이곳을 찾는 군민의 발길 또한 잦아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싸리봉 등산로 1km 구간에 진달래 군락지가 만개해 많은 등산객들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순창군은 앞으로 숙박동 광장 잔디 설치사업과 구곡순담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건강장수연구소 주변을 교육과 관광, 쉼과 힐링 개념이 융합된 가족친화 복합 힐링공간으로 만들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순창 힐링숲 순창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 주변에 구절초 등 야생화 3만여 그루를 심어 소나무와 야생화가 어우러진 개성만점의 숲으로 등산객 등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순창군 제공〉

정읍시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

총 120명 21일부터 신청

7월22~8월16일 읍면동 근무

정읍시는 대학생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2013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모두 120명으로 특별모집 35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과 지정모집 30명(칠보물테마유원지 근무희망자), 일반모집 55명을 구분해 선발한다. 일반모집 및 지정모집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존 아르바이트 참여자는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2013년 6월1일 이전에 부모 또는 본인이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이며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시 홈페이지(http : //www.jeongeup.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다음달 3일 정읍시 영상회의실에서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 한 후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아르바이트에 선발된 학생은 7월22일부터 8월16일까지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시청 및 읍면동 현장근무 위주로 운영되며, 급여는 하루 3만9000원씩 만근 시 최고 89만7000원이 지급된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새만금을 어이할꼬?

방조제 준공 3년 만에 2000만명 돌파

이후 방문객 가파르게 줄어 대책 시급

새만금 방문객이 방조제 준공 3년 2개월 만에 20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매년 방문객이 가파르게 줄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17일 "15일을 기준으로 새만금 관람객이 2000만73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새만금방조제가 지난 2010년 4월27일 이후 하루 평균 1만7000여명이 방문한 셈이다.

현재 방조제는 24시간 개방되고, 부안방향의 새만금홍보관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단이 부안통제소와 부안통제소의 출입차량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관광버스 16만대와 승용차 480만대가 방조제를 다녀갔다. 주말에는 하루 평균 2만여명이 찾는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방문객 수는 매년 줄고 있다.

방조제가 준공한 2010년 722만2392명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갔지만, 2011년 570만951명, 2012년은 487만7610명으로 감소세에 있다.

/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nogusu@

단신

정읍 영원면, 감자 120박스 경로당 등에 보내

정읍시 영원면은 17일 유휴토지 1200㎡에서 재배한 감자 120박스(20kg 기준)를 지역 내 32개 마을 경로당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영원면 직원 및 농협, 보건지소, 우체국 등 기관·단체가 씨감자대와 생산비용 및 인력 등을 지원해 지난 3월 씨감자를 심어 이날 수확했다. 이외에도 영원면은 매년 김장배추를 재배해 '고향의 정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관내 소외계층 및 경로당에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부안군 변산면에 '부안참뽕 테마거리' 조성

부안군은 17일 "부안 뽕 산업의 메카인 변산면 마포리 유유마을 일대에 '부안참뽕 테마거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사진〉

유유마을은 150년 이상 뽕밭을 일구어 누에를 키워온 국내 최대 뽕밭 밀생지로 현재 부안 뽕 산업의 중심지로, 군은 이러한 유유마을과 연계해 지방도 736호선 2.5km에 뽕나무 30년생 300주를 식재했다. 군은 부안참뽕 테마거리를 중심으로 부안누에타운과 부안참뽕연구소, 전북도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등 관련 기관이 위치해 있어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부안=장재용기자 jjy0681@

전주시 도심 공원 내 19개 분수 본격 가동

전주시는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시민들이 가까운 도심 속에서 더위를 피할수 있도록 공원 내 설치된 19개의 분수 시설을 17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분수 가동시간은 오는 10월까지로, 가동시간은 여름철 열대야와 폭염, 섭씨 32도 이상 무더위 등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시설 절전 종합대책에 따라 분수대 가동시간 및 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고창군, 여름철 재난대비 전담팀 10개반 편성

고창군은 17일 "여름철을 맞아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각 분야별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 동안 전담팀 10개반(56명)을 구성하는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또 재난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개면 13개소를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강풍 및 호우주의보 등 각종 기상특보를 주민 1만5000여명에게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군내 재해위험지역은 모두 468곳이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